

깨달음의 숲을 거닐다



“7일 안에 깨쳐라!” 해안 스님의 선종을 쓰이며 서울 전등사 전등선림 재가선객들이 화두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과연 화두를 들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이렇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화두를 들었다” 생각하면, 농철 때가 많아요. 의심을 늘 쟁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고’ 자체가 의심이죠.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해요.”

“그 의심이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

“바로 그것이 의심이죠.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화두참구지요.”

제자는 간절하게 묻고 스승은 거침없이 답했다. 방선 시간이라든 가부좌를 틀든 문답은 즉석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일까? 지도점검에는 ‘피엄피엄’이 없다. 두루 풍수리 넘어가지 않는다. 연간해선 스승이든 제자든 빈틈을 내어 보이지 않았다. 가열차게 붙어질 뿐이다.

10월 18일,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 선원장 동명 스님과 한 재가자가 지대방에서 수행문답을 하고 있었다. 곧장 재가자가 다시 물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성적인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주주지는 본래는 연세 자료를 번외드립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이비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center.co.kr E-mail: heejun@avata21.com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①6 - 서울 전등사 전등선림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높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찾으려 해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높을 찾는 것이 이 공부지요? 그 높을 꾸준히 찾으세요.”

‘선림(禪林)’이라 이름 지은 까닭은?

상설 재가참선수행도량인 전등선림은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에서 그 전통이 시작된다. “7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며 재가자에게 깨달음의 확신을 심어준 해안 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전등선림의 기풍이다. 때문에 전등선림은 통사도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종을 펼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으면서, 지금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동명 스님은 “나무가 혼자 크면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성장하지만,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면 옆에 있는 나무를 자기 경계로 삼아 곧게 크게 된다”며 “선원 이름이 선림인 이유도 나무가 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수행자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야 큰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깨달음의 숲”이란 뜻을 지닌 전등선림. 그래서 선림에서는 재가자들의 대중정진을 중시한다. 스승 없는 정진은 특별장군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크게 한번 죽는다. 그래야 깨닫는다’

해안 스님의 선종이 이처럼 깃든 전등선림에서 정진하고 있는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경험을 하고 있을까? 10년 넘게 ‘이렇고’ 화두를 들고 있는 고정성(77·서울 정릉동)씨에게서 먼저 체험담을 들었다.

“정진을 하다가 안 되고 화두는 천리만리 도망가면, 억울함에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그러다가도 화두가 순일하게 잡히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좋고 싫음이 없어지더군요. 그저 화두만 잡고 있는 나를 확인했죠. 심지어 그런 나조차도 느낄 수 없게 돼 한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울 여름이든, 참종(參叢·인거 대중의 잘못을 살피며 경책하는 역할) 소임을 맡았던 김명자(66·서울 수유동)씨는 ‘크게 한번 죽는다’는 각오로 수행에 매달

렸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일은 접어두고 놓고 가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매일 3~4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이렇고’ 하는 그 높을 찾았지요. 그러면서 내 인연의 소치(所致)를 알게 됐어요. 온갖 경계와 부딪칠 때마다, 내 업장의 두께를 절감했지요. 참회가 저절로 됐죠. 그러나 망상도 화두를 드는 것도 바로 그 높이를 하는 것이라 깨닫게 됐지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전등선림에서는 동·하안거를 비롯해 24시간 선방의 문을 열어 개인별 자유수행이 이어진다. 하루 일과는 오전 8시부터 두 번의 공양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9시까지 교박 좌선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림에서 상주하는 재가선객들은 새벽 3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 이상의 가행정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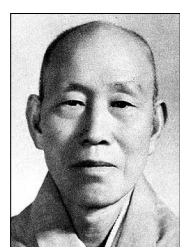


참선 정진중인 재가불자들. 전등선림 조실 해안 스님의 영정이 벽에 걸려있다.

전등선림은 또 초심자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채로운 수행법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초심자들의 경우, 항상 상담을 한다. 상담 이후 참회기도를 거쳐 선방에 입실하게 한다. 면담을 통해 재가자에게 맞는 기도, 간경, 염불 등을 권하며 발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다. 또한 매년 3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해 참선에 앞서 불법에 대한 인목을 갖추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02)762-0643

글·사친·김철우 기자



스님은 특히 ‘크게 한번 죽는다(大死一番)’ 용맹심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수행자는 오직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 옆에서 뇌성벽력이 쳐도 듣지 못해야 하고, 찬 바람이 뼈 속까지 스며들어도 추운 것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죽기 위해서 대들어야 영원한 살 길이 열리지 어서피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결심한다면 7일간의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생사 일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다고 당부했다.

■해안 스님이 “7일만에 깨쳐라” 한 뜻은?

‘사람들은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다. 만일 7일안에 깨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행자의 정신자세가 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아서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

“7일 안에 깨우쳐라”며 단기출가와 용맹정진을 강조했던 해안 스님(사친)은 “7일 정진”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해안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0>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가 공동으로 <간화선>이라는 수행지침서를 출간한 이후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왕초보 및 청소년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2차 대중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연찬회도 여전히 딱딱하고 심각한, 그리고 원론적인 말만 난무하는 참으로 지난(至難)함의 연속이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농담아는 한마디가 오히려 회의보다도 훨씬 감동적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이라는 타이틀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댓구가 튀어나온다.

“대중화된 간화선, 민주화된 간화선, 세 계화된 간화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귀족화된 간화선, 독재화된 간화선, 폭주적인 간화선도 있다는 말이 되는

니 주인에게 한마디 하겠다.

“깨끗한 곳으로 한 조각 주게.”

사러오는 사람이야 신선하고 맛있고 정결한 부위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선하지 않고 맛있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칼을 내던지고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곳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선비는 차별심을 버리지 못했고 푸줏간 주인은 평등심으로 말한 셈이다. 이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사는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이쯤 되면 장터가 법당이요 그 선비는 남자이며 푸줏간 주인이 선지식이 되는 ‘재미있는 간화선’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나주 불회사 인근에 ‘종장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예전의 스님들은 장날이면 물러나와 살림살이로서 ‘행복한



“깨끗한 곳으로 주게” “어디가 깨끗합니까” 푸줏간 주인과 선비 대화 듣고 크게 깨쳐

데...”

그 말에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하긴 언제부터가 ‘코 만지기보다도 쉬운’ 간화선이 ‘최상급 대기’를 위한 것인 반(反)간화선적 분위기로 인해 화두수행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그 사이 웰빙 바람을 타고 ‘마음 다스리기’를 내건 제 3수행법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간화선 대중국을 자처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활개를 치게 됐다. 그 바람에 역작용으로 간화선 본래모습인 대중성을 회복하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으니 이런 결 전화 위풍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시장은 냉정하다. 수요자의 인기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재미있는 간화선~ 대중화된 간화선이라... 그 말은 반산보적(巖山寶積) 당나라때 스님 선사에게 딱 어울린다. 어느 날 선사께서 정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장날이 지라 여기저기 구경거리가 많았다. 어찌하다 보니 푸줏간 앞을 지나게 되었다. 어떤 선비가 고기를 사러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간화선’의 거랑을 했을 것이다.

반산 선사에게서는 ‘갈거리표’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선사가 어느 날 상여가 나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면서 구상지가 가락을 뽑았다.

“지는 해는 절절로 서쪽으로 지거니와, 오늘의 훈령은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자 뒤따르던 상주들이 그 소리를 후렴으로 받았다.

“애(哀)~ 애(애)야아~ 슬프구나! 슬프구나!”

이 순간 선사의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면서 눈이 훤히 열린 후 스승 마조도일(709~788) 선사의 인가를 받게 된다.

상두꾼의 계승 한마디와 상주들의 후렴 이어달로 반산 선사에게는 바로 깨침의 언어였다. 그런 법문이 ‘재미있는 간화선, 행복한 간화선’ 이라고나 할까.

행주좌와와어묵등정 속에서 늘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서건, 누구의 한마디건 깨침의 인연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반산보적 선사의 예리한 기지는 그래서 더욱 빛나 보인다.

■원효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림사 지장보살상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7호 지정기념

제1회 덕림사 시왕재 및 경로잔치

전법도량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및 권속 26구가 지난 2005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덕림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10일을 전후로 해서 ‘덕림사 시왕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10분의 시왕님들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지난 세월 묵은 업장을 모두 다 참회하고 다시는 죄업의 사슬에 빠지지 않기를 발원하며 전국 최초로 ‘시왕재’를 모십니다. 특히 시왕재의 현대적 의미를 되살려 노인을 봉양하고 공경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남구지역 노인분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성대히 봉행코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11월 6일(음. 10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내 용 | 1부 - 시왕재
2부 - 경로잔치 및 노래공연(오후3시)
음식공양 및 선물증정

장 소 | 덕림사(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4-7)

문의전화 | 중무소 062362-2091~2/주지실 062362-8860 * 당일 덕림사 경내에서 사진 및 국화전시회를 엽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경로잔치에 쓰일 음식 및 선물 등을 보시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림사 주지 무이 월공 합장

주최 : 덕림사 /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금국건설(주), 청남건설, 한빛안경원, newbalance충장로지점, 광주서부경찰서불자회, 광주불교운전자회, 명원재단 정음지부, 예인회, 무등예술봉사단